



‘2015~2016 KCC 프로농구’는 12일 개막해 내년 2월까지 정규리그를 펼친다. 불법 스포츠 도박 파문 속에 새 시즌을 맞은 남자프로농구는 초심으로 돌아가 향상된 경기력을 통해 등 돌린 팬심을 되찾아야 한다.

스포츠동아DB

‘특급가드’ 김선형 빠진 SK, 이정석이 책임진다

올 시즌 10구단 약점 채울 키플레이어는?



‘2015~2016 KCC 프로농구’에선 어느 때보다 혼전이 예상된다. FA(자유계약선수), 트레이드 등으로 선수 이동이 많았고 각 팀 주축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데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에 연루된 11명의 선수는 ‘기한부 출전 보류’ 처분을 받아 전력 변화가 극심했다. 그러나 약점을 마냥 비워둘 수는 없다. 새 시즌을 앞두고 각 팀의 약점을 채울 키플레이어는 과연 누구일까.



●모비스=전준범(24·포워드)

올 여름 훈련기간 동안 유재학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은 포워드다. 모비스는 문태영의 삼성 이적으로 국내선수의 득점 가담이 절실하다. 전준범은 유 감독의 훈련을 이겨내면서 착실하게 새 시즌을 준비했다. 연습경기에선 모비스의 공격 옵션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여줬다. 유 감독은 “(전)준범이가 많이 좋아졌다”며 뿌듯해하고 있다.



●동부=허웅(22·가드)

지난 시즌에는 ‘해제의 큰 아들’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제는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준비를 마쳤다. 비시즌 중 농구캠프 참가를 위해 미국에 다녀왔으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표팀에 선발돼 국제경기 경험도 쌓았다. 동부는 늘 ‘가드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허웅은 이를 단숨에 털어버릴 자원이다.



●SK=이정석(33·가드)

볼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팀 내에서 이정석의 역할은 김선형을 돕는 ‘조력자’였다. 그러나 김선형이 자리를 비우면서 그의 역할은 ‘주전 포인트가드’로 바뀌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리딩에 준수한 외곽슛과 수비능력까지 갖춘 베테랑이다. 김선형의 이탈로 화려함과 실속을 모두 잃은 SK는 화려함은 이승준, 실속은 이정석이 메워줄길 기대하고 있다.



●LG=양우섭(30·가드)

LG는 김시래의 군 입대(상무)로 가드 전력에 약해진 마당에 유병훈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제 가드 자원은 양우섭과 정성수 정도다. 현재로서는 양우섭을 주전 포인트가드로 활용해야 한다. 김진 감독은 “포인트가드를 맡으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며 양우섭에게 분발을 촉구했다.

●오리온스=이승현(23·포워드)

프로 2년차 이승현은 한 시즌 만에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공수에 걸쳐 오리온스의 핵심 역할을 맡을 그는 센터 장재석의 이탈로 포스트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기량과 성실함은 검증됐다. 문제는 건강이다. 그는 유니버시아드 대표팀, 국가대표팀을 오가며 쉴 틈 없는 비시즌을 보냈다. 이승현의 건강은 올 시즌 오리온스의 운명을 좌우할 요소다.



◀ 오리온스 이승현

국가대표 포워드 이승현, 오리온스 ‘키맨’ 비상결전 KGC, 가드 강병헌 어깨 무거워 삼성, 문태영 없는 1라운드 임동섭에 기희



●전자랜드=정효근(22·포워드)

장신 자원이 적은 전자랜드는 올 시즌에도 높이의 열세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외국인선수 마저 2m가 채 되지 않는 안드레 스미스(30·198cm)를 선발했다. 201cm의 장신 포워드 정효근은 전자랜드의 ‘완전 소중환’ 존재다. 2년차 시즌을 맞아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비시즌 내내 공을 들였다. 유도훈 감독은 그의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kt=이광재(31·가드)

전자랜드와 마찬가지로 kt의 장신 자원은 빈약하다. kt는 외곽농구로 승부를 건다. 슈터 이광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그는 2~3시즌 전까지만 해도 KBL을 대표하는 슈터였다. 팀의 에이스 조성민과 쌍포를 이룬다면 ‘작지만 빠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다.



●KGC=강병헌(30·가드)

KGC는 출발이 험난하다. 오세근이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전열을 이탈했고, 박찬희 이정현은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1라운드 출전이 불가능하다. 강병헌은 본래 포지션인 슈팅가드는 물론 포인트가드와 스몰포워드까지 소화해야 한다. KGC의 시즌 초반이 그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질인 허리 통증 없이 비 시즌을 보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KCC=전태풍(35·가드)

전태풍은 2012년 KCC를 떠난 뒤로 흥을 잃었다. KCC의 농구도 그가 떠난 뒤 재미가 없어졌다. 올 시즌을 앞두고 KCC와 전태풍은 재회했다. 전태풍에게 신나는 요소가 가득하다. 그를 잘 아는 추승균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으며 ‘둥짜’이 맞는 하승진이 끝말을 지키고 있다. 용병마저 ‘절친’ 리카르도 포웰이 가세했다. 팬들에게 ‘신나는 승리’를 안기는 것만 남았다.



●삼성=임동섭(25·포워드)

2012년 삼성에 입단한 임동섭은 그동안 부상(발가락 골절)을 달고 살았다. 지난 시즌은 아예 통째로 쉬었다. 재활에 매진해온 그는 자신의 재능을 입증할 준비를 마쳤다. 대표팀에 차출된 문태영이 1라운드에 뛸 수 없다. 임동섭에게는 그동안의 설움을 풀 수 있는 기회다. 삼성은 그에게 팀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2015~2016시즌, 달라지는 것들



2015~2016시즌 남자프로농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공인구다. KBL은 올 시즌부터 FIBA 공식 사용구인 몰텐 GL7X를 공인구로 사용한다. 스포츠동아DB

〈엔스포츠앤라이크파울〉

U파울, FIBA 를 따른다

플라핑 규제 강화·공인구 변경도

2015~2016시즌 남자프로농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외국인선수 제도 외에도 규칙과 스피드업을 위한 규정들, 공인구 등이 변경됐다.

전체적인 규칙은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을 기준으로 변했다. 특히 U파울(엔스포츠앤라이크 파울, 상대에 자유투 2개+공격권 부여)을 통합했다. 지난 시즌 KBL은 속공을 장려하기 위해 로컬 규정으로 U1파울을 따로 만들었으나, 기준이 모호한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판정기준은 FIBA 룰로 정리됐다. 속공 상황에서 공격선수와 상대팀 바스켓 사이에 수비선수가 없을 때, 수비선수가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뒤쪽 또는 측면에서 접촉하는 경우 U파울이 주어진다. 또 앞에 수비선수가 있을 때도 정상적 수비가 아닌, 일부러 파울로 끊으면 U파울로 간주된다.

여기에 파울을 유도하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인 플라핑도 FIBA처럼 엄격히 규제한다. KBL은 플라핑에 대해 테크니컬 파울(자유투 1개+공격권)을 주기로 했다. 단 과도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팀에 1차 경고, 이후 해당 팀 소속 선수가 또 플라핑을 하면 테크니컬 파울을 부과한다.

비디오 판독은 감독에 한해 팀당 1회 요청할 수 있다. 판정이 번복될 경우, 한 차례 더 기회를 준다. 이외에도 하프타임을 15분에서 12분으로 줄이고, 작정타임 시간 준수와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로 인한 경기 지연도 제한한다.

공인구도 바뀌었다. 지난 시즌 나이키로 공인구를 교체했으나 스폰서 계약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고, 올 시즌부터는 FIBA 공식 사용구인 몰텐 GL7X로 바꿨다. 몰텐이 4월 발매한 GL7X는 2019년까지 FIBA가 주관하는 모든 국제대회에서 사용된다.

이명희 기자 nirvana@donga.com

KGC 김승기·KCC 추승균·kt 조동현 감독

초보 사령탑들의 도전장

‘2015~2016 KCC 프로농구’가 1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올 시즌에는 3명이 사령탑으로 데뷔한다. KGC 김승기(43) 감독대행, KCC 추승균(41) 감독, kt 조동현(39) 감독이다. 초보 사령탑들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기존 감독들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스승과 격돌하는 조동현 감독

지난 시즌까지 모비스 코치로 재직했던 조동현 감독은 이제 유재학(52) 감독을 적장으로 만나게 됐다. 조 감독과 유 감독의 인연은 오래됐다. 조 감독은 전자랜드 선수로 활약하던 시

절 유 감독과 사제의 인연을 맺었다. 조 감독이 2012~2013시즌을 끝으로 은퇴하자 유 감독은 제자에게 코치직을 제의했다. 조 감독과 유 감독은 2013~2014, 2014~2015시즌 코치와 감독으로 호흡을 이뤄 팀을 챔피언에 올려놓았다. 8월 프로-아마 최강전에서 모비스에 패한 조 감독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선 스승에게 몇 승을 빼앗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선후배 우정을 접어야 하는 추승균 감독

추승균 감독은 삼성 이상민(43) 감독과 선수시절 찰떡궁합을 자랑했다. 이 감독의 패스는 추 감독의 손에서 득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 둘은 KCC의 전신 현대 시절 리그 2연패를 달성하는 등 이른바 ‘현대 왕조’의 중심축이었다. 지도자로 변신한 둘은 공교롭게도 전통의 라이벌 구단 사령탑으로 격돌하게 됐다. KCC와 삼성은 프로농구 출범 이전부터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 두 사령탑의 승부욕도 엄청나다. 경기 후 웃으며 약속하겠지만, 지는 사람은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듯하다.

●입단 동기 맞대결 앞둔 김승기 감독대행

김승기 감독대행과 SK 문경은(44) 감독은 90학번 동기생들이다. 둘은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함께 입단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오랜 기간 가드와 슈터로 손발을 맞췄다. 지도자 경력은 김 감독대행이 더 많다. 그는 2006년 코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령탑 데뷔는 문 감독이 빨랐다. 2010년 SK에서 코치로 출발한 문 감독은 2012년 지휘봉을 잡았다. 문 감독은 정규리그 우승을 한 차례 차지하기도 했다. 감독 경력으로만 보면 김 감독대행이 문 감독에게 도전하는 모양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개성만점 단신용병들 ‘히든카드’

‘득점기계’ KCC 안드레 에미트, 가장 주목

2015~2016시즌 남자프로농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단신(193cm 이하) 외국인선수들의 활약상이다. 이들은 코트에 화려함을 보태기 위한 KBL의 ‘히든카드’다. 단신선수라고 해서 테크니션만 즐비한 것은 아니다. 포인트가드, 스코어러, 언더사이즈 빅맨 등 신장 제한 속에서도 각 팀 감독은 팀 사정에 맞는 스타일의 선수를 선발했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KCC 안드레 에미트(33·191cm)다. 미국프로농구(NBA) 경력자인 그는 중국, 필리핀 등에서 ‘득점기계’로 통했다. 득점기술에 있어선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KCC 관계자는 “(농구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다. 끝내주게 잘한다”며 한껏 기대에 부른 모습을 보였다.

오리온스 조 잭슨(23·180cm)은 ‘덩크하는 포인트가드’로 주목받고 있다. 화려한 개인기와 폭발적 운동능력을 자랑하는 그는 8월 열린 프로-아마 최강전에서 덩크슛을 터트리며 팬들을 매료시켰다. 포인트가드가 약점인 오리온스는 잭슨이 화려함과 성적을 모두 잡는 ‘복덩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미트, 잭슨과 달리 모비스 커스버트 빅터(32·190cm)와 kt 마커스 블레이크리(27·193cm)는 인사이드에 강점을 지닌 선수들이다. 특히 블레이크리는 득점뿐 아니라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모두 능한 만능선수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테크니션보다는 조니 맥도웰(전 현대), 클리프 리드(전 KIA), 아티머스 맥클래리(전 삼성) 등 언더사이즈 빅맨을 뽑은 팀들이 우승을 차지한 경우가 많았다. 빅터, 블레이크리가 강세를 보일 경우, 테크니션을 보유한 팀들은 대거 용병 교체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지욱 기자

남자프로농구 10개 구단 단신 외국인선수 현황

구단	선수	키	포지션	주요 경력
모비스	커스버트 빅터	190cm	포워드	스페인리그
동부	라사드 제임스	183cm	가드	D리그
SK	드워릭 스벤서	187cm	가드	D리그
LG	맷 볼딘	192cm	가드	D리그
오리온스	조 잭슨	180cm	가드	D리그
전자랜드	알파 벵그라	191cm	포워드	D리그
kt	마커스 블레이크리	193cm	포워드	필리핀리그 레베온드 1위(2013년)
KGC	마리오 리틀	190cm	가드	D리그
KCC	안드레 에미트	191cm	가드	NBA 중국리그 득점 1위(2011년)
삼성	론 하워드	189cm	가드	D리그 MVP(2014년)